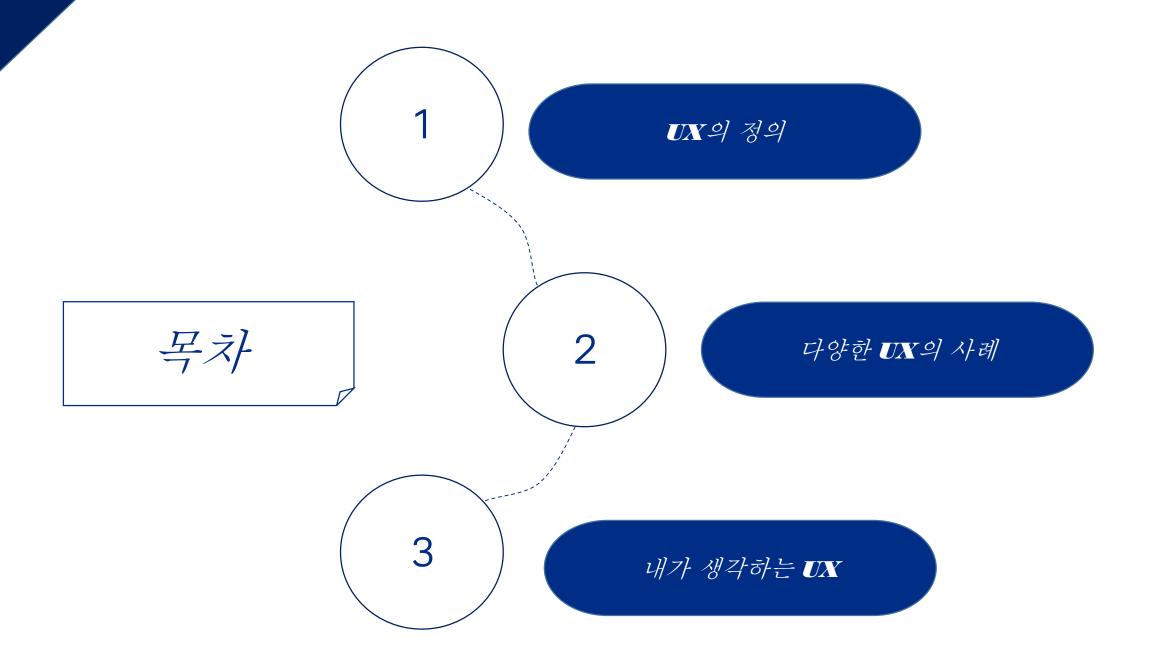
UX 圣사보고서

배민주



UX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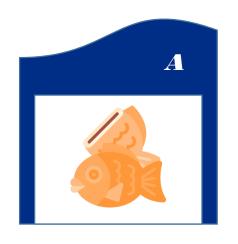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시스템, 정책 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체적 경험을 의미.

어떤 대상에게 가지는 다양한 감정과 지각작용, 지식이나 기능 등의 총합

다양한 UX의 사례











붕세권을 공유해달라!

가슴속 3천원의 계절, 우리 동네 붕세권은?

줄서기 싫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 체력도 시간도 버리는 웨이팅이 필수인가?

배달, 어디까지 해봤니?

집에서 시켜먹을 수 없는 게 없는데! 심지어 한 집에 하나만 배달?

장보기 싫어! 퀄리티 WANT!

제품 퀄리티는 더 좋고 오늘 주문한 게 내일 오는 걸?

오늘 미세먼지는 어떻지?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다던데 오늘도 마스크를 해야하나?

다양한 UX의 사례- <붕세권 어플-가슴속 3천원>









- ✓ 붕어빵에 진심인 사람들
- ✓ SNS가 활성화 되면서 날이 조금만 추워져도 붕어빵 관련 게시물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 ✓ 동네 커뮤니티만 검색해봐도 붕어빵 점포 위치와 후기를 공유하는 댓글들이 한가득이다.
- ✓ 결국 붕어빵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 '가슴속 3천원'이라는 어플이 등장했다.
- ✓ 지도에 점포의 위치, 붕어빵의 맛을 가늠할 수 있는 별점, 가게 형 태와 영업일, 결제 방식과 방문자의 후기까지 공유할수 있다.

다양한 UX의 사례- <원격 줄서기 어플-테이블링, 캐치테이블>









- ✓ 핫플레이스들은 웨이팅이 필수인데, 적절한 예약 체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손님과 사장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 ✓ 스마트폰도 그렇고 빨리빨리가 인생의 모토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웨이팅 어플까지 등장했다.
- ✓ 가게 방문 전 어플로도 줄을 설 수 있고, 가게에 있는 웨이팅 기계 로도 웨이팅 등록이 가능하다.
- ✓ 현재 대기팀이 몇명인지 명시 되어있고 예상 소요시간까지 짐작 가능하다. 내 차례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까지!

다양한 UX의 사례 <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쿠팡이츠 >









- ✓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우리나라 배달문화.
- ✓ 배달 서비스 이용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 ✓ 예전처럼 짜장면,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음식 외에도 배달 가능 업종의 다양화로 디저트나 죽, 초밥까지 배달해 먹는 게 가능해짐.
- ✓ 또한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맞춰 1인분 메뉴 만 배달 주문도 가능.
- ✓ 사람들의 배달 소요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쿠팡이츠는 한 집에 하나만 배달 가능해 빠른 배달시간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등장했다.

다양한 UX의 사례- <장보기 어플-마켓컬리>



한눈에보기

샛별배송	수도권·충청	오늘 밤 11시 전 주문 내일 아침 7시 전 문 앞 도착
	대구	오늘 밤 8시 전 주문 내일 아침 8시 전 문 앞 도착
택배배송	그 외 지역	오늘 밤 10시 전 주문 내일 밤 12시 전 문 앞 도착



- ✓ 소비자들은 점점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 지 오래
- ✓ MZ세대의 요즘 트렌드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 ✔ 운동이 유행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현상이 열풍이다.
- ✓ 먹는 식료품의 질과 유통과정 또한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교적 높게 느껴져도 본인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 ✓ 또한 장보기를 숙제처럼 생각하는 자취생, 주부들에게 오늘 주문한 제품이 내일 온다는 샛별 배송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UX의 사례- <미세먼지 수치 어플-미세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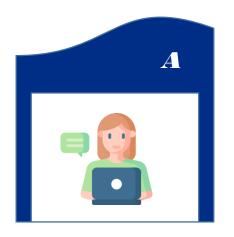






- ✓ 대기의 질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요즘, 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두되고 있다.
- ✓ 특히 황사철만 되면 하늘이 뿌옇게 보일정도로 심각한데, 미세먼 지의 수치에 따라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 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 ✓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등장한 미세미세 어플!
- ✓ 지역별,시간별 미세먼지의 수치, 초미세먼지 수치까지 체크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UX









다양한 사용자

그들의 경험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UX의 범위는 무한하다.

끝없는 BLUE OCEAN

'사용자'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 이 넘쳐흐르는 샘과 같은 분야

한계가 없다!

관련 종사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

틈새시장 선점이 최고!

모두가 느끼는 점을 가장 먼저 실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THANK YOU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피키캐스트